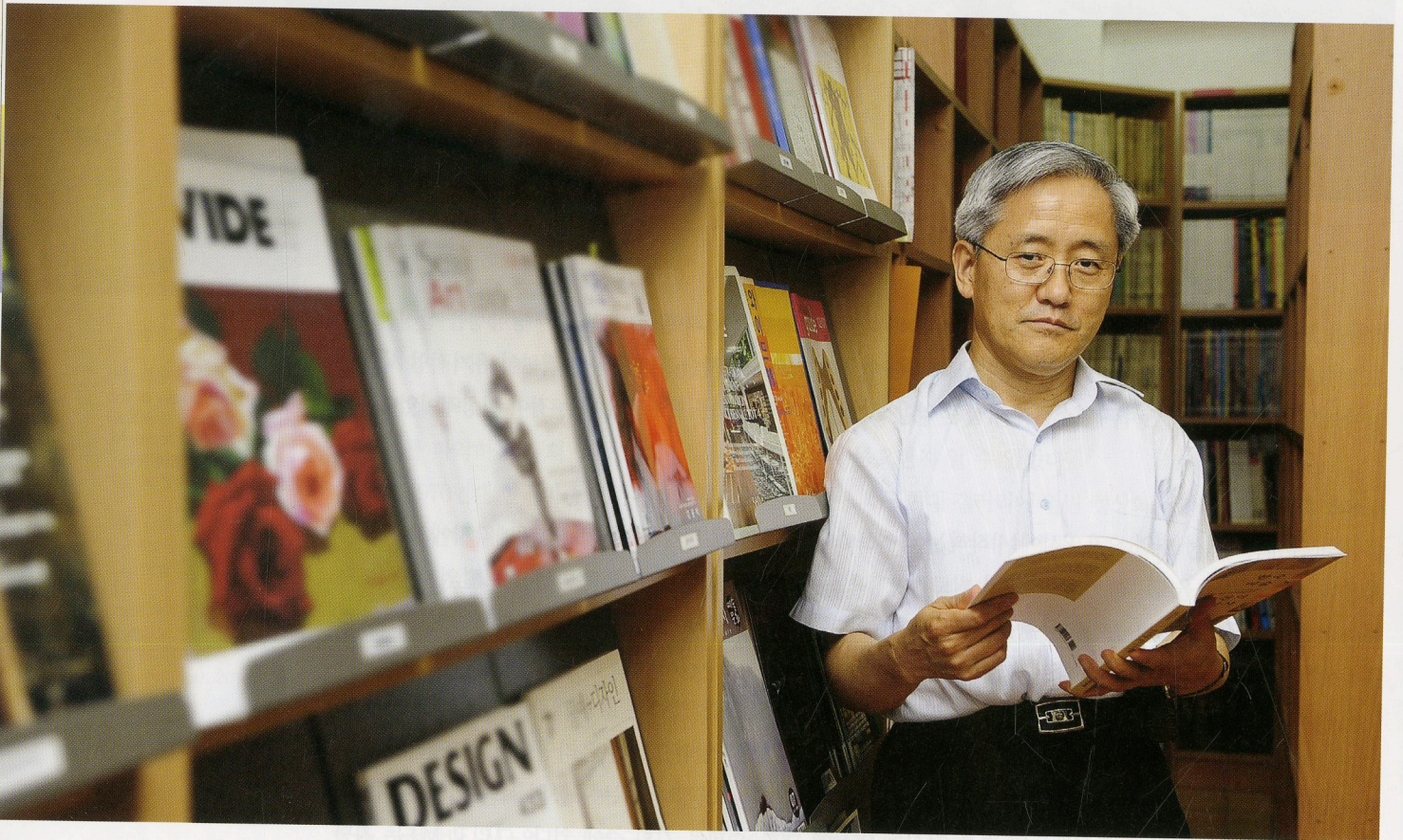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에 평생 모은 자료 기증 미술자료전문가 김달진



Kim, Daljin

한국미술정보센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예술전용공간임차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총 4년(계약 2년, 조건부 연장 2년) 이란 기한이 9월 30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 7월호 미술세계는 「한국미술정보센터와 김달진관장: 한국미술 아카이브의 미래는 어디로?」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결국 김달진이 평생 모은 15,000여 권(부)의 미술자료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기증하기로 최근에 결정했다. 이번 기사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기획한 《한국미술 공모전의 역사》(2014.6.24~10.31) 전이 열리고 있고 관련 단행본도 출간되었다. 역시 김달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터뷰 박정원 편집팀장 사진 김홍규 팀장

평생 모은 15,000여 권의 자료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한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겠다

일간지 보도를 통해 자료를 보관할 공간에 대한 문제는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다 심지어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유진룡 문화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용호성 청와대 국장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유기홍 주호영 국회의원의 많은 분들을 만나 ○ 사안에 대해 알리고 부탁했다 오히려 지방에서는 공간 지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작년에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창작센터 대구예술발전소, 청주 산업문화진흥재단,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으로부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는 해도 역시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나를 비롯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후원회 회원들도 공간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 ○ 기본적인 합의점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공릉동의 옛 법원 건물도 무산되었고 서울시립미술관 김홍희 관장과의도 접촉을 했지만 일종의 부설 부속 조건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공간 조건이 3년 후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도대체 무엇 ○ 문화융성인지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문화정책이 가시적인 비엔날레, 레지던시 등에 치중되어 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할 장소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새로운 장소는 구했는지 궁금하다

후원기관과의 상황과 여건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고 공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자료의 경우 이제는 도저히 수량적으로도 보관이 힘든 상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국미술정보센터에서 도서와 팜플렛 등의 기존 열람 서비스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기증해서 그곳에서 검색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김달진미술연구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유지를 시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게 되었다 현재 25명 이상의 전시장 등을 갖



춘 박물관 건립의 법적 조건을 최소한 만족시킬 만한 건물을 종로구 홍지동에 구했다 원래 올해 9월 30일 ○ 만기인데 창전동의 마지막 전시가 끝난 이후 11월 초에 이전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기증 자료와 약정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준다면

작년에 미술관 측에 공간을 허용해준다면 5년 정도 우리 측에서 열람서비스와 위탁 운영하면서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제안을 했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동안 열람 서비스를 해왔던 자료 중에서 15,000여 권 정도를 기증한다 도서 학위논문이나 팜플렛이나 브로셔 등이 주를 이룬다 정형민 관장을 만나 지금은 기증약정서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 빠르면 7월 넷째 주 안에 실질적으로 약정이 될 것 같다

원본 자료 모두 기증하는 건가 서울관은 디지털정보실로 설정하고 과천관이 열람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원본 자료 모두 기증한다 우리 측에서는 도서관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봐야한다 도서관 외의 박물관의 운영은 그대로 유지한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작년에 예산이 생겨서 과천에 미술 연구센터를 만들었고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최근 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서울관의 디지털정보실과 과천관의 열람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워 과천관의 책을 서울관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실용화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왼쪽페이지

김달진 관장, 《한국미술 공모전의 역사》전과 함께 발행된 단행본을 들고,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오른쪽페이지

《한국미술공모전의 역사》 전시 전경



이건용, 《달팽이 걸음》,
퍼포먼스, 동덕미술관 공연,
1979
이 흑백사진 왼쪽편에 36년 전의
이건용 선생을 묵묵히 바라보는
한 청년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24살의 김달진이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미술현장에서 볼
수 있는 김달진의 한결같은
모습이기도 하다. 이미지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 추가로 기증하는 자료도 생기지 않아
이사와 동시에 기증 자료를 단계별로 분류를 하고 ○
관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연구소와 박
물관 운영하고 계속 자료가 수집이 되고 있는 상태이
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도 차근차근 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기증 자료가 미술관 전시를 통해 다각적으로 사용되
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기증한 자료에 대한 추후 기관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내 관할에서 벗어난 것이다 국립기관이라
는 좋은 조건과 합당한 예산 안에서 활성화시켰으면
한다 국가가 작품을 위한 수장고만 마련해야 할 것
○ 아니라 아카이브를 위한 수장고를 마련해야 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 한 작가를 심도 깊게 연구하려면
그 작가의 유품 관련 기록물들을 잘 보관하고 연구해
야 하는데, 그 동안은 너무 작품 위주로만 모아진 게
사실이다 세월이 흐르면 그 자체로도 긍정적 가치가
있고 문화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박물관적 측면에서 소장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경매기
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조건부 기증 약정은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 간단히 말해줄 수 있나

지금 약정 내용은 특별한 건 없다 기존에 자료를 기
증한 미술관계자들의 약정서와 엇비슷하다 단지 ○
건 요구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전시와 연구목적
을 위해 서울관에 기증한 자료 중에서 대여 신청을 하
면 일정 기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조건을 걸었다 사
실 순수 기증에 가깝지만 ○ 러한 조건부로 약정을 하
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
작한다 이용길씨(부산시립미술관에 자료 기증)와 고
여송씨(광주시립미술관에 자료기증) 그리고 윤범모씨
(전북도립미술관에 자료 기증)의 기증 사례에서 7년
○ 지난 지금도 일반 공개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기증하신 노고의 결실도 없이 두 분은 돌아가시
고,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끌고 나가
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구조적인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국립기관에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다

이제는 '김달진'이란 이름만 들어도 아카이브란 단어
가 저절로 떠오른다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
해달라

실제 한국미술정보센터 이용○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크다 이용객 수에 비례하여 지원의 중요성과 희
소성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닌데 그 기준이 틀린거다
그것은 그저 미술대학 평가를 취업률로 하겠다는 논
리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한다 아카이브는 후세에 역
사를 남기는 거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좋은 아카
이브를 수집하는 것은 끊임없이 한국 미술계에 가치 창
조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도 작품과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기관의
작가에 대한 전시경력이나 연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미술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

문예연감 작업도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예연감 작업은 지속되는 것인가
일 년간 미술계의 통계라든지 연감으로 제공되던 것
은 사실상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밖에

없다 김달진미술연구소측에서 항상 제공을 해왔다
올해부터 이것도 온라인상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이 된다 오히려 발행 부수를 적게 하
더라도 종이로 만들어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 그
리고 전시 총목록 등은 이미 CD로만 만들어왔다 지
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종이 연감도 없어진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국립예술자료원도 아가
이브 관련 국가기관으로서 그 가치에 비중을 두면서
2010년에 아르코예술정보관도 예술지원정책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독립되었지만 4년 만에
다시 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예산 낭비와 그
성과가 다시 후퇴해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없고 아직 선택 기준도 모호하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문제다 국립현대미술관 간담회
때 공개 질문 한 것도 “그 많은 작가들 사이에서 모두
다 보존하느냐 취사선택을 하느냐” 였는데 취사선택
을 한다고 하더라 지금은 필요 없는 자료이지만 언젠
가는 필요해 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장소가 허
용하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자료는 끌어 모아야 하는
거다 후대에 이르러 가치판단을 해서 폐기를 하더라
도, 지금은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다 그 지침이나 표준화는 이제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하는 거다

미술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미술공모전’의 역
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와 단행본을 출
간했다 창전동에서 하는 마지막 전시라서 더 의미있
게 다가온다

이번 전시 자료 중 『국제보도』라는 잡지는 1년간의 행
사를 화보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접하기 힘든 작품
이미지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1회부터 5회까지 한국전
쟁 상황 등으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도록이 발행
되지 않아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심지어 1977년
역대국전수상작품집 도록에 일간지에 실린 흑백 작품
이미지를 확대하여 망점도 흰히 보이도록 사용한 경우
도 있었는데, 이 고화질 이미지가 『국제보도』에 수록되
어 있다 이렇게 소장 자료를 토대로 아카이브의 효용
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작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려 한다 그 동안 못했던 김달진박물
관을 활성화시키는 작업과 더불어 추후 전시 공간의 역
사 미술연표와 사조에 관련된 자료를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는 등 현대미술에 대한 폭넓은 아카이브를 제공
함으로써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다 관심을 가
지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국아트아카이브 협회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의 활
동이 궁금하다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미
술관 아카이브, 학술 아카이브, 전시 아카이브 분과로
즉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학술분과는
금년 초부터 관련 원서 번역을 하고 있고 미술관 분과
는 두 달에 한 번씩 이 번 주에 예술자료원에 모임을
가졌었다 예술자료원, 서울대 미대 조형연구소, 백
남준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연구소(KARI) 등 특화된
아카이브 현황이라든가 기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주제를 정해서 세미
나를 진행할 예정이고, 학술 분과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책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아놓은 자료들이 소개되면서 김달진미술
자료박물관 소장품 역시 한층 심도있게 볼 수 있을 것
이다

아키비스트로서 어떤 자료를 모으는가 만약 취사 선
택을 할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모두 모을 수 있는 공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도록,
이미지제공 김달진미술연구소

『국제보도』(1950),
『국제보도』(1957), 이미지제공
김달진미술연구소



김달진(1955~ 충북 옥천생)은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월간 전시계(1978~1981),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1981~1996),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장(1996~2001)을 거쳐 현재 김달진미술연구소 소장(2001~), 월간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2002~),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2008~)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미술에서 정확한 미술자료 제공 및 아카이브 전시와 관련 학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김세중조각상 제 17회 한국미술 저작출판상(2014)을 비롯하여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2010)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도서출판발원, 1995),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공저)』(한길아트, 2005), 『대한민국미술인명록(편저)』(김달진미술연구소, 2010)가 있다.